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제언: 잃어버린 한민족 뿌리 역사의 원형을 찾자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민족이 일제 식민치하에 국권을 상실하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빼앗겼을 때 <동방의 빛>이란 시를 통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노래했다. 그는 과거 어느 시절에 동방의 밝은 빛이었듯이 한민족이 다시 깨어나는 날 또 다시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한민족의 정신문명이 조각난 인류 세계사를 하나로 통일하고 자유의 천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 한민족은 분명히 과거 어느 시대인가 동방의 문명을 일깨운 위대한 민족이었음이 분명하다. 혹 타고르가 삼국시대 변창했던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나 백제의 무령왕 시대, 통일신라시대를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난 등불 시대로 상징하지는 않았는지 모르나 분명 그것은 아니라 본다. 삼국은 모두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전수 받거나 중국문화를 일시 부흥시켜 일본과 서남아시아에 전수한 것뿐이다. 지금은 우리 역사에도 사라진 삼국이전의 고조선에는 중국이 아직 고대왕조국가의 틀을 갖추기도 전의 농경시기에 선진 청동기 문명이 있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념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내천 사상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홍익인간·재세이화의 정



손성태 배제대 교수는 남미 아메리카 인디언의 원조상이 한민족이라고 주장한다 (STB상생방송 캡처)

치이념이 있었다. 이 모두가 한민족 고유의 현묘지도(玄妙之道)인 신교(神敎)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천문화와 물을 다스리는 치수법과 24절기에 의한 새로운 농경법과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술, 군사를 다스리는 전략전술과 오행의 원리와 복희팔괘를 이용한 점성술 등을 담은 홍범구주(洪範九疇)사상이 고조선에 있었다(弘益人間과 陰符經, 姜舞鶴氏).

이러한 고조선의 발달한 선진문명이 있었기에 주나라 무왕이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고조선의 한 제후였던 기자를

통하여 홍범사상을 전수받아 중국 최초의 고대왕조국가를 세우고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를 삼았다고 한다(藝文志). 주 무왕 이후 그들은 홍범구주와 복희 팔괘와 오행의 원리를 발전시켜 주역과 음양오행으로 바꾸었고,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유불선의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되었으며, 동방의 패권을 쥐게 되었고 이후 고조선의 역사를 예곡 발달하였다. 이러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분명 일찍이 한민족에게 찬란한 고조선 문명의 기틀이 있었기에, 훗날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동방의 등불 역할이 가능했

던 것이다.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며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했던 잃어버린 천년 제국 고조선 시대를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조선을 잃어버린 이후 중국은 그들의 역사를 중화중심으로 하기 위하여 고조선의 역사를 말살하고 모든 것을 중국 것으로 왜곡하여 왔고 오늘날에 와서 더욱 역사왜곡에 광분하고 있는 것도 고조선의 선진문명에 지배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덮기 위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한 것처럼 한민족이 깨어나 동방의 밝은 빛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2천여 년의 긴긴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민족을 통하여 참 진리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메시아 구세주 정 도령님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사왜곡 정책과 한국 역사학계의 대응은 어떠한가?

오늘날 중국은 동북공정과 탐원공정이라는 역사정책으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 산둥반도지방의 홍산문명과 동북 삼성지역의 요하문명을 발굴하여 고구려의 역사로부터 고조선의 역사를 자기네 변방 역사로 만들고자 혈안이다.

2면 상단으로 이어짐

특별기고

고조선 와당의 제작자는 단지파 코드를 남겼다

고대 히브리어 와당과 고조선 건국시기

전호(714호, 7월 1일자) 3면 특별기고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3점을 소개하는 동시에 추가로 더 찾은 고조선 시대의 히브리어 와당 11점을 공개하였다. 그리하여 대동강 유역에 출토된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이 모두 14점으로 늘어났다.

14점의 고대 히브리어 와당을 분류하면, <도착했다>는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이 4점이고, <오엽화와 함께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라>는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이 4점이고, <잡언을 지휘하는 사사(삼손)가 통치한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는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이 6점이 다.

그리고 14점의 와당에 새겨진 고대 히브리어는 기원전 1,200년경에서 기원전 1,000년경 사이에 사용된 문자로 보인다.

다. 이유인즉 「계절달력」에 새겨진 고대 히브리어(Paleo Hebrew)보다 더 오래된 문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계절달력」은 예루살렘 서북서 약 30킬로미터에 위치한 계절 성읍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원전 1,000경(사울 혹은 다윗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착했다>는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이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서 세워졌다는 증거이며 또한 고조선의 건국시기를 기원전 1,000년경으로 확정할 수 있다. 고조선 시대의 수막새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인이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분배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동북방으로 이주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 있는데, [그림 1]을 보면 분명해진다.

단지파는 지중해의 우수한 문명을

가져왔다

한민족의 뿌리가 되는 단지파가 가나안(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소라 성읍을 떠나 한반도까지 와서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을 건립하였다고 해서, 민주지역의 홍산문명(紅山文明, 요하문명)이 고조선의 문화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이집트의 청동기 문화와 블레셋의 철기 문화를 경험한 단지파가 지도자 삼손 장수를 잃고 지금의 레바논 남쪽 소라 성읍을 떠나 한반도까지 왔기 때문에, 대동강 유역에서 세워진 고조선은 이미 청동기와 철기를 결합한 우수한 문화의 터전 위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제정일치 사회를 열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에서 동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단지파는 알타이산맥 근교

(지금의 중국 서북부)에 와서 약 2000년 간 우거(寓居)하고, 그리고 몽고(蒙古)를 거쳐 만주를 지나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 유역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여기서 한민족의 뿌리가 되는 단지파의 이동 과정에서 중국의 주(周)나라를 세운 주역이 단민족의 비주류로 추정되며 또한 몽골초원의 유목민이 단지파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주는 자연히 몽고의 단지파 사람들과 한반도 고조선의 단지파 사람들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며, 몽골의 단민족과 한반도의 단민족이 융화되던 그곳에서 홍산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다.

도피성의 귀면(鬼面)와당에 삼손 얼굴

고조선 건국초기의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 가계(家系) 출신이었을 것

2면 중간으로 이어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6)

"나라는 의식을 뺏아버리는 비결"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방의 신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의식을 뺏아버리는 비결은 시간 시간 그 마음이 움직일 적마다 "나라는 존재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하면 이긴다. 하나님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다.

의심이 나면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의심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해야 되는 것이다. 과거의 하던 일이 생각나면 즉시 "뒤돌아보는 음란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

탕!"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모를 때에는 "진탕만탕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하며 기도해야 한다.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그때그때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하면 나라의 영이 좌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그 생각을 포착하여 기도를 하면 의심이 나오려야 나올 수 없고, 인간의 생각이 움직이려야 움직일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 달 간의 강의를 듣고

일속에 파묻혀 사는 우리들(해동 여정들)에게 한 달 간의 휴가가 주어졌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알차게 한 달을 보낼까? 고심을 하는 중에 어느 분의 권리로 새식구 교육 전에 교육을 해 주시겠다는 권유가 왔다. 일단 하던 우리들이라 격정 반 호기심 반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여 강의에 참석했다.

5월 30일부터 7명의 강사들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임상섭 승사님의 강의는 어려운 곳을 열어주는 듯한 명쾌하고 통쾌한 강의였다. 정확하게 콕콕 찍어 재미도 있고, 깊이와 넓이가 있는 가장 인상 깊고 감명 깊은 강의였다. 윤봉수 회장님은 진솔하고 단박하며, 있는 그대로의 가식 없는 강의였다. 호소력과 진심이 들뜬 문어였다. 김중만 사장님은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솔직하고 진실 되게 말씀해 주셔서 감동을 주었다. 박철수 총무님은 기초부터 완성까지 진리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었다. 신기한 내용과 기초지식을 잘 버무려서 시원하고 묘미 넘치는 테크닉으로 강의해 주셨다. 안명숙 부인회장은 살아있는 증거를 통한 감동의 강의를 해주셨다. 따뜻하면서도 감격스런 실제 체험의 값진 대화의 강의였다. 김형준 방송실장님의 강의는 단순명료하면서도 깊이도 있고 정확도가 높은 편안하고 친근한

강의였다. 정수원 승사님의 강의는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려웠지만 성경과 격암유록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강의였으며, 자료를 복사해 일일이 나눠 주시는 정성과 세심한 준비, 게다가 새식구를 사랑하는 맘이 지극하였다.

강의를 듣고 나니 전도에 자신감이 생겼다. 사실 일반 할 때에는 전도를 나가자고 하면 겁이 났다. 뭔가 어색하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 노방전도를 나가보니 옛날의 내가 아니었다. 행인들에게 스스럼없이 전도지를 건네고 말을 걸었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에게 말을 건네듯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전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변한 모습을 실감하니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이 생긴다.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자신감이라는 귀한 보배를 주시고, 그것을 작은 보물로 오래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신 강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 열심히 준비하시어 뭔가 새롭고 값진 내용 알려주시는 노고를 깊이 간직하려고 한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변수자님이 청강하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썼습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안 죽는 종교입니다.

인생은 고행(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

본지 지만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